

3. 전라남도 항목

- 3-1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 주된응답
- 3-2 이상적인 자녀 수
- 3-3 향후 걱정하는 질환
- 3-4 질환을 걱정하는 이유
- 3-5 흡연여부 및 흡연정도
- 3-6 금연시도 여부 및 금연이 어려운 이유
- 3-7 필요한 편의시설 수요 - 주된응답
- 3-8 우선적 정책대응이 필요한 환경문제
- 3-9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65세 이상, 주된응답)
- 3-10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과 사회통합 정책
- 3-11 독서여부 및 독서량
- 3-12 자신의 독서량 만족도
- 3-13 독서량 부족이유(복수응답)
- 3-14 야간활동 안전성
- 3-15 야간활동이 불안한 원인
- 3-16 야간활동이 불안할 때 대처방법(행동)
- 3-17 도로명 주소 활용여부 및 활용만족도 여부
- 3-18 도로명 주소 활용이 편리한 분야(복수응답)
- 3-19 도로명 주소 활용이 불편한 분야(복수응답)
- 3-20 행정정보 획득 매체-(1)전라남도 도정
- 3-21 행정정보 획득 매체-(2)신안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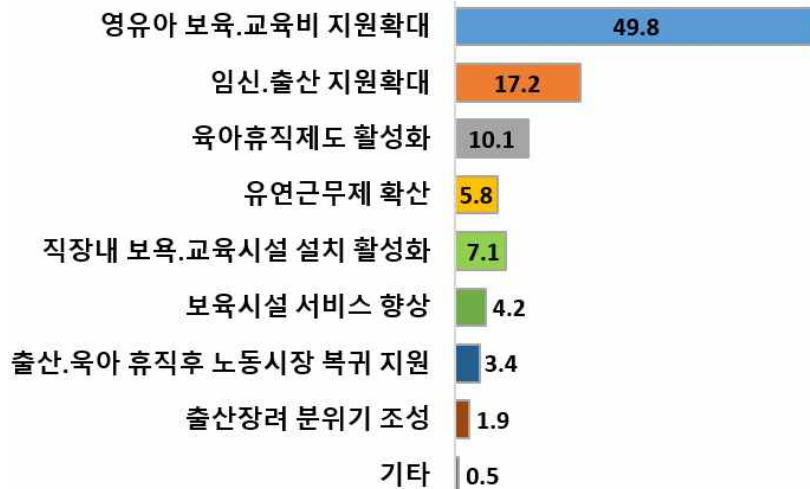
3-1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 주된응답

저출산 문제 해결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무상교육 전면 실시 등)」 응답이 49.8%로 가장 많고, 「임신·출산 지원확대(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17.2%,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배우자의 육아휴직 3개월 의무화 시행 등)」 10.1% 순으로 나타남.

-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응답은 2019년 43.9%에서 2021년 49.8%로 증가함.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모든 분류에서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응답이 가장 많음.
- 지역별로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응답은 중부권(59.3%), 북부권(48.4%), 서남부권(41.1%) 순으로 나타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 주된응답



[표 3-1]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 주된응답

(단위: %)

구분	계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확대	임신·출산 지원확대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유연근무제 확산	직장내 보육·교육 시설 설치 활성화	보육시설 서비스 향상	출산·육아 휴직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기타
2017년	100.0	50.8	11.2	11.0	5.4	9.2	4.5	3.9	3.2	0.7
2019년	100.0	43.9	11.9	13.8	6.3	9.8	3.9	6.0	4.0	0.4
2021년	100.0	49.8	17.2	10.1	5.8	7.1	4.2	3.4	1.9	0.5
< 지역별 >										
중부권	100.0	59.3	12.8	8.8	5.4	7.6	2.7	2.5	0.8	0.0
북부권	100.0	48.4	18.3	16.5	3.0	5.6	3.7	2.8	1.7	0.0
서남부권	100.0	41.1	20.8	7.3	8.1	7.5	6.0	4.8	3.2	1.3
< 성별 >										
남자	100.0	49.0	16.1	10.6	5.8	7.5	3.8	4.4	2.0	0.8
여자	100.0	50.6	18.4	9.5	5.9	6.6	4.7	2.3	1.9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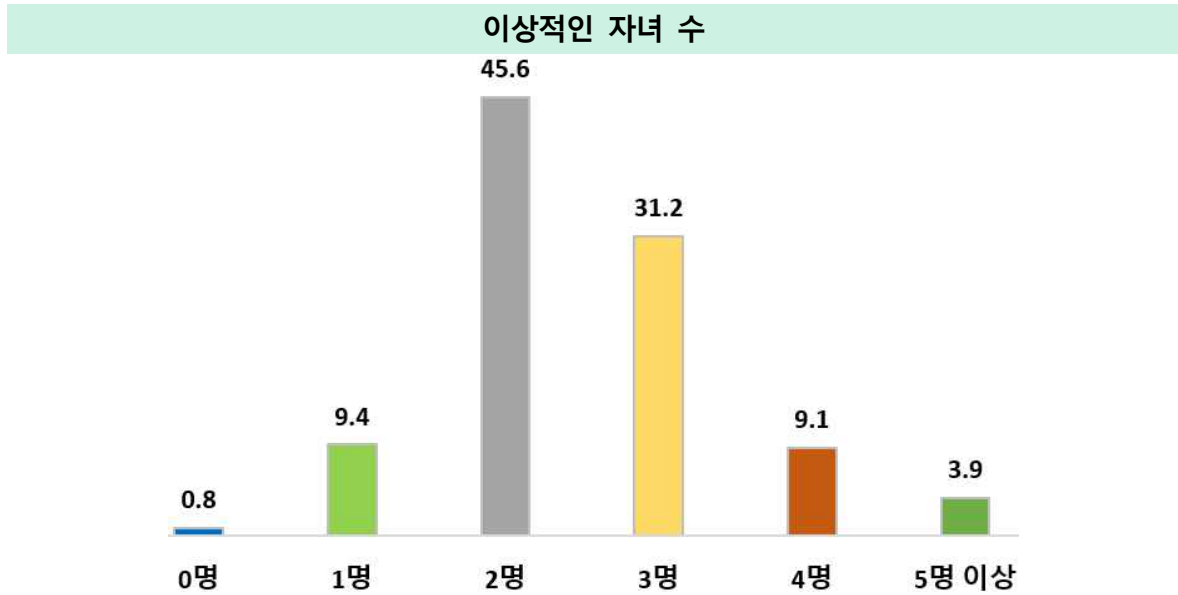
자료: 2021년 신안군 사회조사

3-2 이상적인 자녀 수

이상적인 자녀 수 평균 「2.5명」

• 이상적인 자녀의 수는 평균 2.5명으로 2017년 평균 2.4명 대비 0.1명 증가, 2019년 평균 2.1명 대비 0.4명 증가함.

- 2017년 이후 이상적인 자녀의 수로 「2명」 응답이 지속적으로 가장 많았음.
- 지역별로 이상적인 자녀의 수는 「2명」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평균2.6명), 서남부권(평균 2.6명), 중부권(평균2.3명)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70세 이상에서는 「3명」 응답이 가장 많고, 나머지 연령대는 「2명」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표 3-2] 이상적인 자녀 수

(단위: %)

구 분	계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평균(명)
2 0 1 7 년	100.0	0.9	9.2	56.2	22.5	8.5	2.7	2.4
2 0 1 9 년	100.0	1.5	17.3	55.6	17.8	7.0	0.9	2.1
2 0 2 1 년	100.0	0.8	9.4	45.6	31.2	9.1	3.9	2.5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0.9	12.1	49.7	29.8	6.7	0.8	2.3
북 부 권	100.0	1.7	10.7	36.8	33.0	10.3	7.5	2.6
서 남 부 권	100.0	0.0	5.9	47.2	31.4	10.8	4.6	2.6
< 성 별 >								
남 자	100.0	1.0	10.8	48.0	30.6	6.7	2.8	2.4
여 자	100.0	0.5	7.9	42.8	31.9	11.9	5.1	2.6

자료: 2021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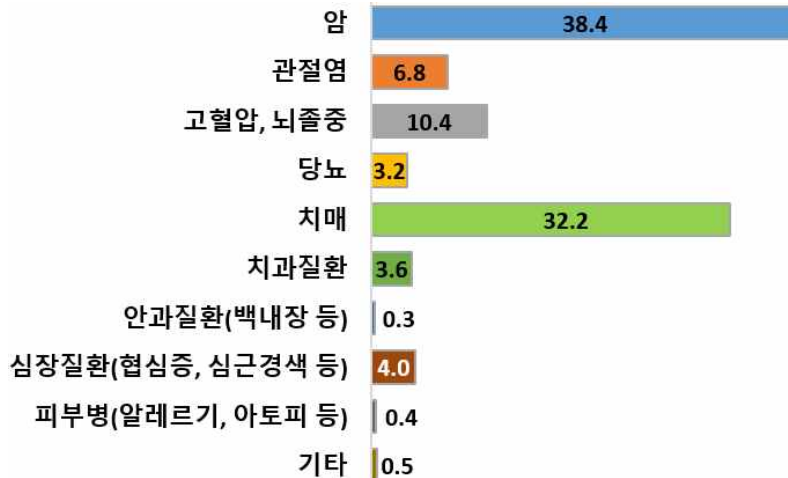
3-3 향후 걱정하는 질환

향후 가장 걱정되는 질환은 「암」

• 걱정하는 질환으로 「암」 응답이 38.4%로 가장 많고, 「치매」 35.2%, 「고혈압, 뇌졸중」 10.4%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암」 응답이 가장 많고, 중부권(40.5%), 북부권(37.5%), 서남부권(37.0%) 순으로 나타남.
- 남자는 「암」(43.1%) 응답이 가장 많고, 여자는 「치매」(39.0%) 응답이 가장 많음
- 연령별로 「암」응답은 30대(63.4%)에서 가장 많고, 연령이 높을수록 응답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치매」 응답은 70세 이상(49.6%)이 가장 많고 연령이 낮을수록 응답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향후 걱정하는 질환



[표 3-3] 향후 걱정하는 질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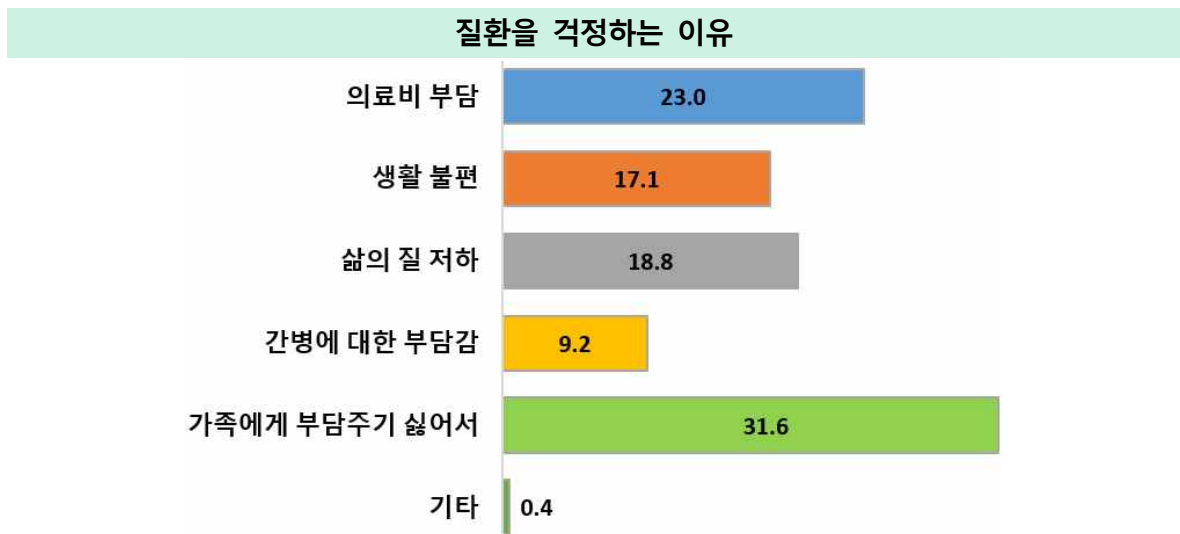
구분	계	암	관절염	고혈압, 뇌졸중	당뇨	치매	치과질환	안과질환(백내장 등)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등)	피부병(알레르기, 아토피 등)	기타
2021년 <지역별>	100.0	38.4	6.8	10.4	3.2	32.2	3.6	0.3	4.0	0.4	0.5
중부권	100.0	40.5	6.2	10.0	2.1	34.4	2.0	0.2	4.3	0.4	0.0
북부권	100.0	37.5	10.4	9.8	2.7	33.3	2.1	1.1	1.6	0.9	0.6
서남부권	100.0	37.0	5.2	11.1	4.7	29.4	6.3	0.0	5.2	0.0	1.0
<성별>											
남자	100.0	43.1	4.2	12.5	3.6	26.4	4.3	0.1	4.7	0.2	0.9
여자	100.0	33.1	9.9	7.9	2.8	39.0	2.9	0.6	3.2	0.5	0.2

자료: 2021년 신안군 사회조사

3-4 질환을 걱정하는 이유

질환을 걱정하는 이유는 「가족에게 부담주기 싫어서」

- 질환을 걱정하는 이유로 「가족에게 부담주기 싫어서」 응답이 31.6%로 가장 많고, 「의료비 부담」 23.0%, 「삶의 질 저하」 18.8%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가족에게 부담주기 싫어서」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39.0%), 중부권(33.1%), 서남부권(25.2%)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15~29세는 「생활불편」(33.6%) 응답이 가장 많고, 30대(41.7%)는 「의료비 부담」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40대 이상은 「가족에게 부담주기 싫어서」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표 3-4] 질환을 걱정하는 이유

(단위: %)

구분	계	의료비 부담	생활 불편	삶의 질 저하	간병에 대한 부담감	가족에게 부담주기 싫어서	기타
2021년	100.0	23.0	17.1	18.8	9.2	31.6	0.4
< 지역 별 >							
중부권	100.0	30.4	12.2	15.3	9.0	33.1	0.0
북부권	100.0	13.1	23.4	18.1	6.4	39.0	0.0
서남부권	100.0	22.0	17.8	22.8	11.2	25.2	1.0
< 성 별 >							
남자	100.0	24.8	15.6	19.4	9.9	29.4	0.7
여자	100.0	20.8	18.7	18.1	8.3	34.1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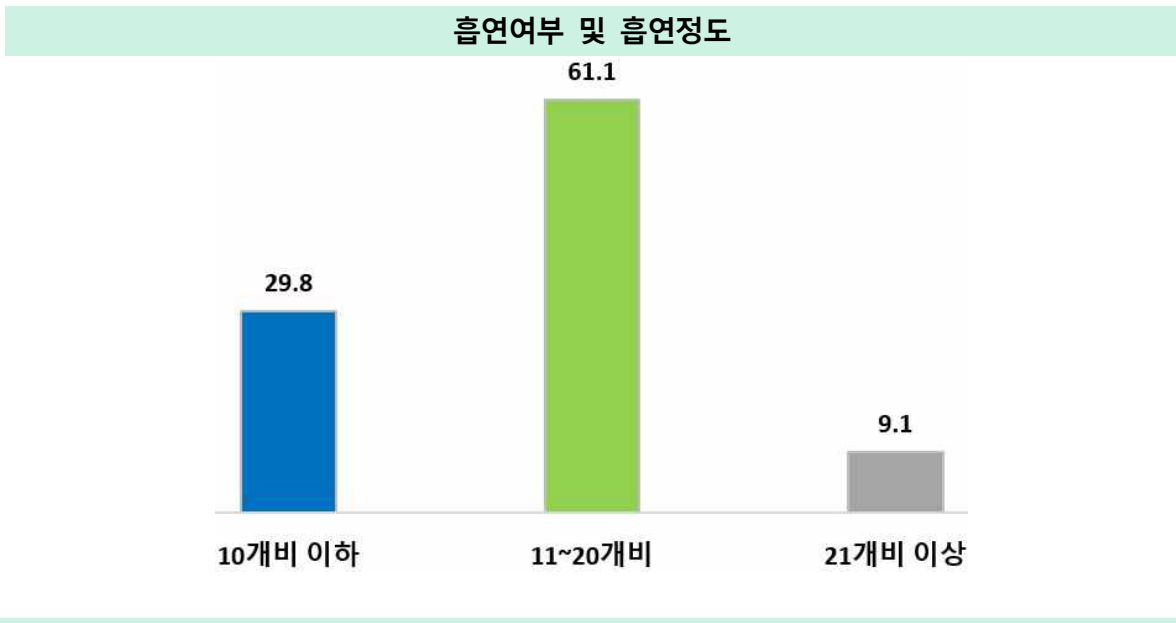
자료: 2021년 신안군 사회조사

3-5 흡연여부 및 흡연정도

흡연 19.0%, 하루 평균 11~20개비

• 흡연율은 19.0%로 2017년(17.9%)대비 1.1%, 2019년(16.5%) 대비 2.5% 증가함.
하루 평균 「11~20개비」 응답이 61.1%로 가장 많고, 「10개비 이하」 29.8%, 「21개비 이상」 9.1%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흡연율은 북부권(22.3%), 중부권(20.2%), 서남부권(15.8%) 순으로 나타남.
- 여자(0.9%)보다 남자(34.8%)의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50대(33.3%)의 흡연율이 가장 많고, 40대(29.6%), 30대(22.5%) 순으로 분석됨.
- 직업별로 전문/관리직(26.2%) 종사자의 흡연율이 가장 많고, 기능/노무직(22.9%) 종사자의 흡연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표 3-5] 흡연여부 및 흡연정도

(단위: %)

구 분	계	피우지 않음					피우지 않음			
		소계	10개비 이하	11~20개비	21개비 이상	소계	끊었음	피운적 없음		
2017년	100.0	17.9	100.0	49.2	47.7	3.0	82.1	100.0	20.3	79.7
2019년	100.0	16.5	100.0	44.4	51.5	4.0	83.5	100.0	18.9	81.1
2021년	100.0	19.0	100.0	29.8	61.1	9.1	81.0	100.0	23.0	77.0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20.2	100.0	36.0	58.9	5.1	79.8	100.0	23.9	76.1
북 부 권	100.0	22.3	100.0	21.7	56.1	22.2	77.7	100.0	17.7	82.3
서 남 부 권	100.0	15.8	100.0	29.5	68.4	2.1	84.2	100.0	25.3	74.7
< 성 별 >										
남 자	100.0	34.8	100.0	29.4	61.3	9.3	65.2	100.0	50.3	49.7
여 자	100.0	0.9	100.0	52.4	47.6	0.0	99.1	100.0	2.2	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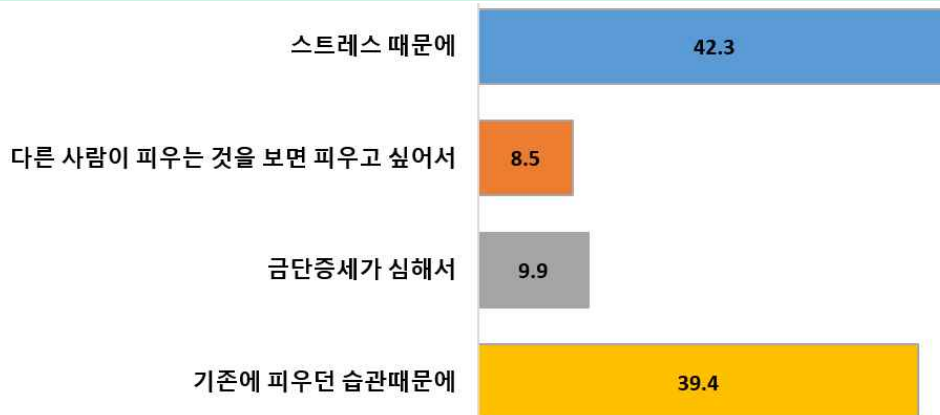
자료: 2021년 신안군 사회조사

3-6 금연 시도 여부 및 금연이 어려운 이유

금연 시도 52.9%, 「스트레스 때문에」 금연 어려움 42.3%

- 현재 흡연하는 응답자 중에서 지난 1년 동안 금연 시도 응답은 52.9%로 2017년(46.1%) 대비 6.8%, 2019년(38.1%) 대비 14.8% 증가함. 금연이 어려운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에」(42.3%) 「기존에 피우던 습관 때문에」(39.4%)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금연 시도는 중부권(62.0%), 북부권(49.6%), 서남부권(44.2%) 순으로 나타남.
- 금연 시도는 남자 53.0%, 여자 47.9%로 나타남.
- 연령별로 금연시도는 60대(62.5%)가 가장 많고, 15~29세(14.0%)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됨. 금연이 어려운 이유로 15~29세는 「다른 사람이 피우는 것을 보면 피우고 싶어서」 응답이 가장 많고, 30대, 40대는 「스트레스 때문에」 응답이 가장 많으며, 50대, 60대, 70세 이상은 「기존에 피우던 습관 때문에」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금연 시도 여부 및 금연이 어려운 이유



[표 3-6] 금연 시도 여부 및 금연이 어려운 이유

(단위: %)

구분	계	금연을 시도한 적 있음	금연이 어려운 이유						시도한 적 없음
			소계	스트레스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우는 것을 보면 피우고 싶어서	금단증세가 심해서	기존에 피우던 습관 때문에	기타	
2017년	100.0	46.1	100.0	63.1	4.9	7.1	24.9	0.6	53.9
2019년	100.0	38.1	100.0	62.0	3.6	5.3	28.4	0.6	61.9
2021년	100.0	52.9	100.0	42.3	8.5	9.9	39.4		47.1
< 지역별 >									
중부권	100.0	62.0	100.0	44.3	3.8	13.1	38.8		38.0
북부권	100.0	49.6	100.0	34.6	18.2	8.3	39.0		50.4
서남부권	100.0	44.2	100.0	46.5	6.9	5.7	40.9		55.8
< 성별 >									
남자	100.0	53.0	100.0	41.2	8.6	10.1	40.2		47.0
여자	100.0	47.9	100.0	100.0	0.0	0.0	0.0		52.1

자료: 2021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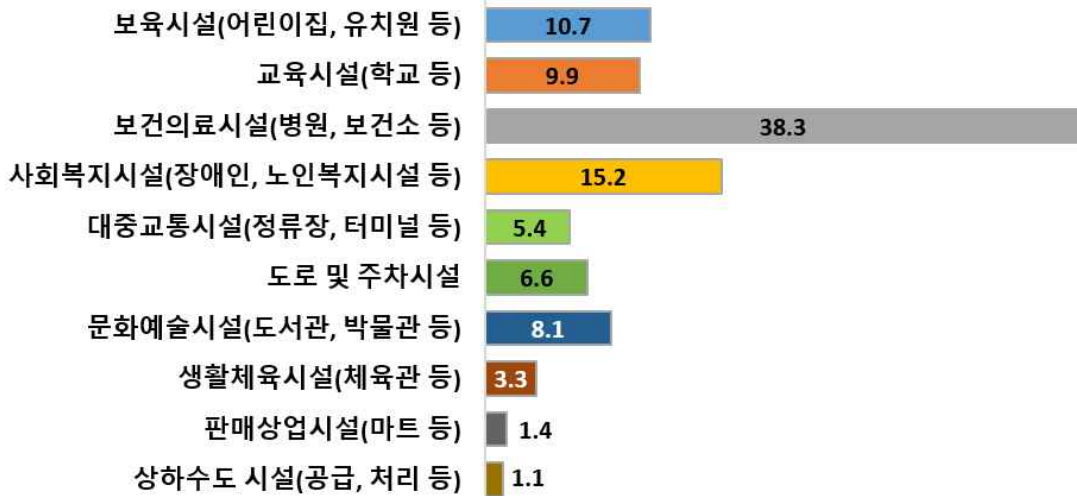
3-7 필요한 편의시설 수요 - 주된응답

필요한 편의시설 「보건의료시설」 38.3%

•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의시설은 「보건의료시설(병원, 보건소 등)」 응답이 38.3%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시설(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등)」 15.2%,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 10.7%,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보건의료시설」 응답은 서남부권(56.3%), 중부권(29.2%), 북부권(24.6%) 순임.
- 연령별로 15~29세는 「문화예술시설(도서관, 박물관 등)」 응답이 가장 많고, 다른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보건의료시설」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필요한 편의시설 수요 - 주된응답



[표 3-7] 필요한 편의시설 수요 - 주된응답

(단위: %)

구분	계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시설(학교 등)	보건의료시설(병원, 보건소 등)	사회복지시설(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정류장, 터미널 등)	도로 및 주차시설	문화예술시설(도서관, 박물관 등)	생활체육시설(체육관 등)	판매상업시설(마트 등)	상하수도 시설(공급, 처리 등)	기타
2021년 <지역별>	100.0	10.7	9.9	38.3	15.2	5.4	6.6	8.1	3.3	1.4	1.1	
중부권	100.0	12.3	11.3	29.2	18.9	6.4	6.7	10.5	4.3	0.3	0.0	
북부권	100.0	15.9	12.7	24.6	20.4	5.3	7.2	8.3	4.0	1.2	0.3	
서남부권	100.0	5.6	6.8	56.3	8.1	4.4	6.1	5.5	1.8	2.6	2.8	
<성별>												
남자	100.0	10.2	9.1	36.8	14.7	5.1	7.8	10.5	3.4	1.4	0.9	
여자	100.0	11.1	10.9	40.1	15.7	5.7	5.2	5.3	3.2	1.4	1.4	

자료: 2021년 신안군 사회조사

3-8 우선적 정책대응이 필요한 환경문제

「쓰레기 투기」 32.1%

• 가장 우선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환경 문제는 「쓰레기 투기(플라스틱, 환경폐기물 등)」 응답이 32.1%로 가장 많고, 「기후변화 재난대응(폭염, 홍수)」 25.4%, 「대기오염(미세먼지 등)」 15.5% 순으로 나타남.

- 「기후변화 재난대응」, 「쓰레기 투기」 응답은 2019년 대비 증가, 「대기오염」 응답은 감소함.
- 지역별로 중부권(34.1%), 서남부권(37.2%)은 「쓰레기 투기」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은 「기후변화 재난대응」(33.4%)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 남자(43.9%)와 여자(35.9%) 모두 「쓰레기 투기」 응답이 가장 많음.
- 연령별로 30대는 「기후변화 재난대응」 응답이 가장 많고, 나머지 다른 연령대는 「쓰레기 투기」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우선적 정책대응이 필요한 환경문제



[표 3-8] 우선적 정책대응이 필요한 환경문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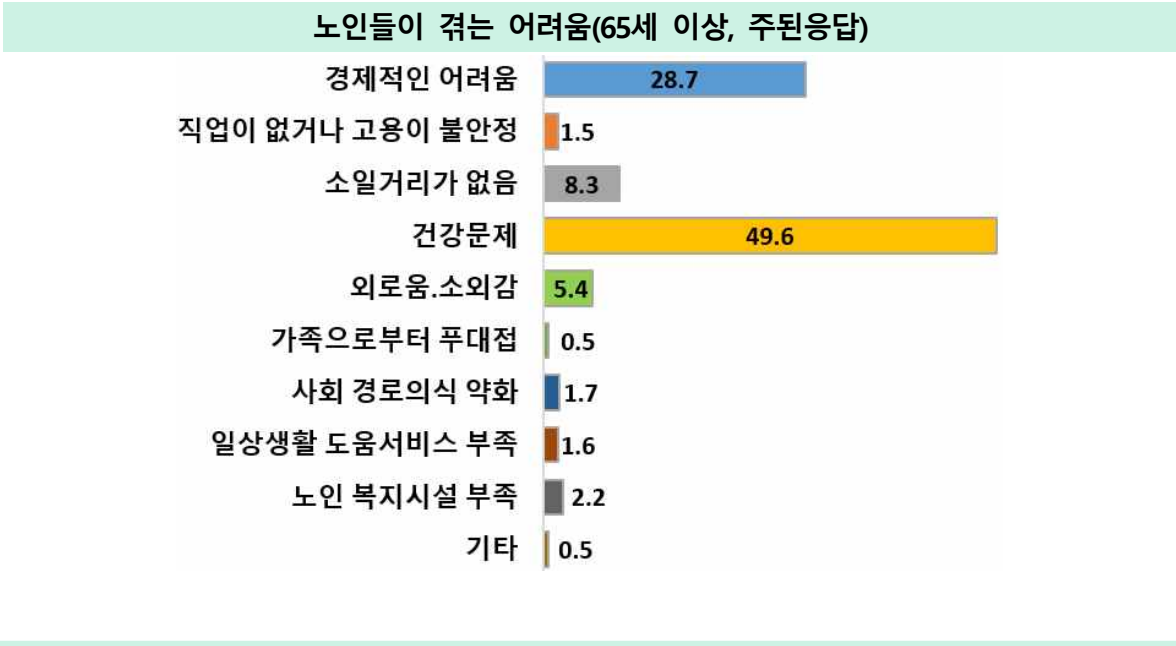
구분	계	기후변화 재난대응(폭염, 홍수 등)	유해 화학물질 사용(가습기 살균제 등)	방사능 위험물질	대기오염(미세먼지 등)	농약, 화학비료 사용오염	수돗물 오염	쓰레기 투기(플라스틱, 환경폐기물 등)	기타
2019년	100.0	15.1	8.1	10.7	42.7	2.8	3.6	17.0	0.1
2021년	100.0	25.4	4.8	5.1	15.5	15.0	2.1	32.1	
< 지역별 >									
중부권	100.0	24.6	5.6	4.1	13.3	16.6	1.6	34.1	
북부권	100.0	33.4	6.8	7.3	16.6	13.7	1.1	21.1	
서남부권	100.0	21.0	2.8	4.6	16.9	14.2	3.2	37.2	
< 성별 >									
남자	100.0	26.2	4.7	6.7	14.5	14.2	2.5	31.2	
여자	100.0	24.4	5.0	3.2	16.6	15.9	1.6	33.2	

자료: 2021년 신안군 사회조사

3-9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65세 이상, 주된응답)

「건강문제」 49.6%

- 만65세 이상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건강문제」(49.6%) 응답이 가장 많고, 「경제적인 어려움」(28.7%), 「소일거리가 없음」(8.3%) 순으로 나타남.
- 2019년대비 「경제적인 어려움」 응답은 47.4%에서 28.7%로 감소하였으며, 「건강문제」 응답은 23.0%에서 49.6%로 증가함.
- 지역별로 「건강문제」는 서남부권(54.8%), 중부권(54.5%), 북부권(34.0%) 순이며, 「경제적인 어려움」 응답은 북부권(32.3%), 중부권(31.6%), 서남부권(23.0%) 순으로 분석됨.



[표 3-9]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65세 이상, 주된응답) (단위: %)

구분	계	경제적 어려움	직업이 없거나 고용이 불안정	소일거리가 없음	건강문제	외로움.소외감	가족으로부터 푸대접	사회 경로의식 약화	일상생활 도움서비스 부족	노인 복지시설 부족	기타
2017년	100.0	34.3	4.5	10.2	36.1	7.5		2.6	1.8	3.1	
2019년	100.0	47.4	4.1	14.4	23.0	5.8	0.3	1.9	0.5	2.7	
2021년	100.0	28.7	1.5	8.3	49.6	5.4	0.5	1.7	1.6	2.2	0.5
< 지역별 >											
중부권	100.0	31.6	1.6	6.4	54.5	3.4	0.0	0.8	1.3	0.4	0.0
북부권	100.0	32.3	2.0	10.5	34.0	10.6	1.5	3.8	3.0	1.5	0.8
서남부권	100.0	23.0	1.2	9.0	54.8	4.0	0.3	1.1	1.1	4.6	0.9
< 성별 >											
남자	100.0	27.8	1.3	5.3	51.8	5.7	1.1	1.7	1.7	2.7	1.0
여자	100.0	29.3	1.7	10.6	48.0	5.1	0.0	1.7	1.6	1.8	0.2

자료: 2021년 신안군 사회조사

3-10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과 사회통합 정책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 35.3%

-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 응답이 35.3%로 가장 많고, 「한국어 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 교육」 19.1%, 「자녀양육 및 자녀의 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 17.6%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모든 분류에서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 응답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3-10]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과 사회통합 정책 (단위: %)

구 분	계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한국어 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 교육	기초생활 보장 등경제적 지원	커뮤니티 공간 제공 및 상담서비스	기타
2017년	100.0	50.2	13.5	8.0	24.5	3.7	-	0.1
2019년	100.0	40.1	15.4	12.1	20.5	7.0	4.9	
2021년	100.0	35.3	10.0	17.6	19.1	10.3	7.8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27.3	10.6	22.8	22.3	12.2	4.9	
북 부 권	100.0	37.3	8.6	19.7	13.9	13.8	6.7	
서 남 부 권	100.0	41.9	10.4	10.9	19.2	6.1	11.6	
< 성 별 >								
남 자	100.0	37.3	9.8	17.9	17.7	9.5	7.9	
여 자	100.0	32.9	10.3	17.2	20.7	11.1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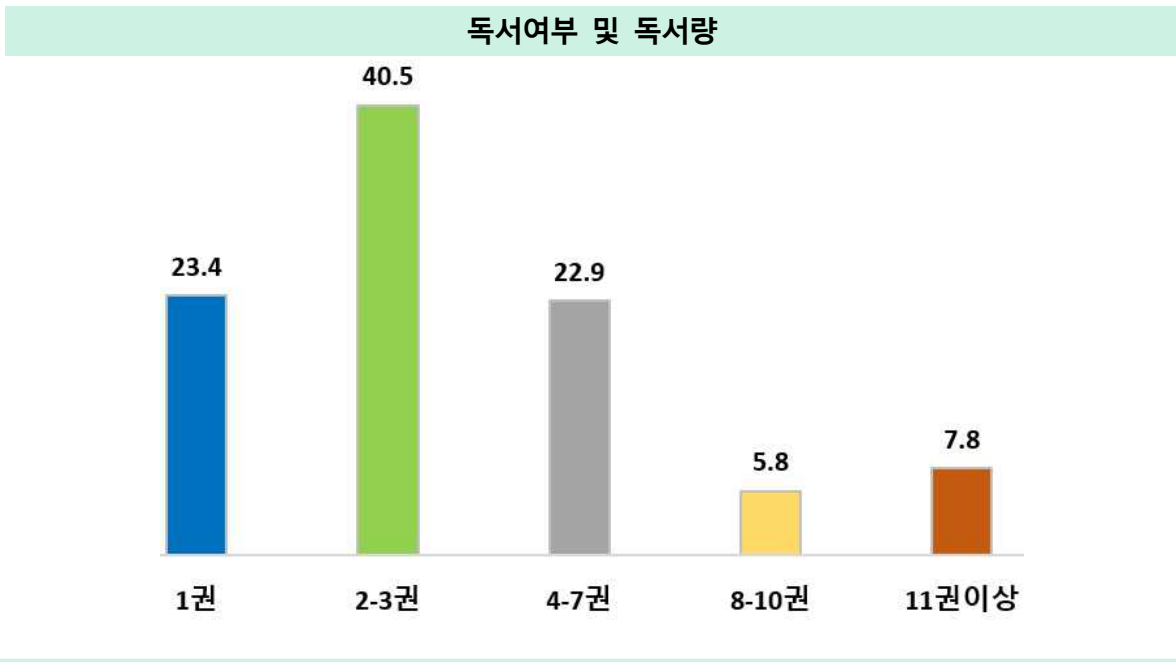
자료: 2021년 신안군 사회조사

3-11 독서여부 및 독서량

독서 41.8%, 연평균 4.4권

• 지난 1년 동안 책을 읽은 응답자는 41.8%이며, 연 평균 4.4권임. 2021년 독서 응답자는 2017년(62.3%), 2019년(60.7%) 대비 감소함. 1년 평균 읽은 책은 2017년(8.0권) 대비 증가, 2019년(5.7권) 대비 감소함.

- 지역별로 독서 응답은 중부권(48.0%)이 가장 많고, 서남부권(41.7%), 북부권(32.5%) 순임. 연 평균 독서권수는 북부권(5.0권), 중부권(4.9권), 서남부권(3.6%) 순으로 조사됨.
- 독서 응답은 남자 48.1%, 여자 34.6%이며 연평균 독서권수는 남자 4.7권, 여자 5.9권임.
- 연령이 높을수록 독서와 독서권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표 3-11] 독서여부 및 독서량

(단위: %)

구 분	계	읽음	읽음							연평균 독서권수	안읽음
			소계	1권	2-3권	4-7권	8-10권	11권이상			
2017년	100.0	62.3	100.0	17.5	17.5	15.1	3.5	14.7	8.0	37.7	
2019년	100.0	60.7	100.0	18.2	40.3	21.9	12.0	7.5	5.7	39.3	
2021년	100.0	41.8	100.0	23.4	40.5	22.9	5.8	7.8	4.4	58.2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48.0	100.0	19.0	39.9	24.6	7.7	9.2	4.9	52.0	
북 부 권	100.0	32.5	100.0	18.4	43.3	21.8	9.4	8.6	5.0	67.5	
서 남 부 권	100.0	41.7	100.0	31.0	39.9	21.6	1.8	5.8	3.6	58.3	
< 성 별 >											
남 자	100.0	48.1	100.0	19.4	40.5	25.7	5.7	9.1	4.7	51.9	
여 자	100.0	34.6	100.0	29.8	40.6	18.5	5.9	5.7	4.0	6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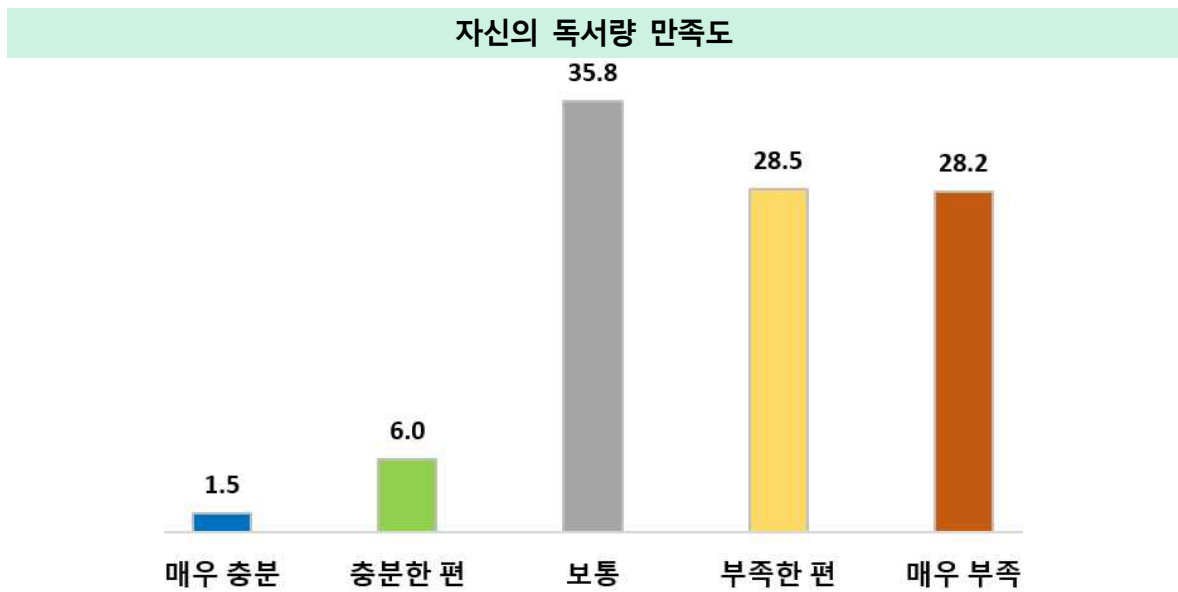
자료: 2021년 신안군 사회조사

3-12 자신의 독서량 만족도

자신의 독서량 「부족함」 56.7%

- 자신의 독서량에 대하여 「부족하다」(56.7%)고 느끼고 있으며, 「보통」 35.8%, 「충분하다」 7.5%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모든 분류에서 자신의 독서량에 대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3-12] 자신의 독서량 만족도

(단위: %)

구 분	계	충분하다			보통	부족하다			
		매우 충분	충분한 편	매우 부족					
2017년	100.0	7.2	2.6	4.6	26.0	66.8	30.8	36.0	
2019년	100.0	9.3	3.6	5.7	29.5	61.2	25.7	35.5	
2021년	100.0	7.5	1.5	6.0	35.8	56.7	28.5	28.2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7.1	1.4	5.7	35.8	57.1	27.5	29.6	
북 부 권	100.0	10.8	1.2	9.5	28.4	60.8	24.6	36.2	
서 남 부 권	100.0	5.9	1.8	4.1	40.4	53.7	32.0	21.7	
< 성 별 >									
남 자	100.0	8.7	1.7	7.0	38.7	52.6	27.4	25.2	
여 자	100.0	6.2	1.3	5.0	32.3	61.4	29.7	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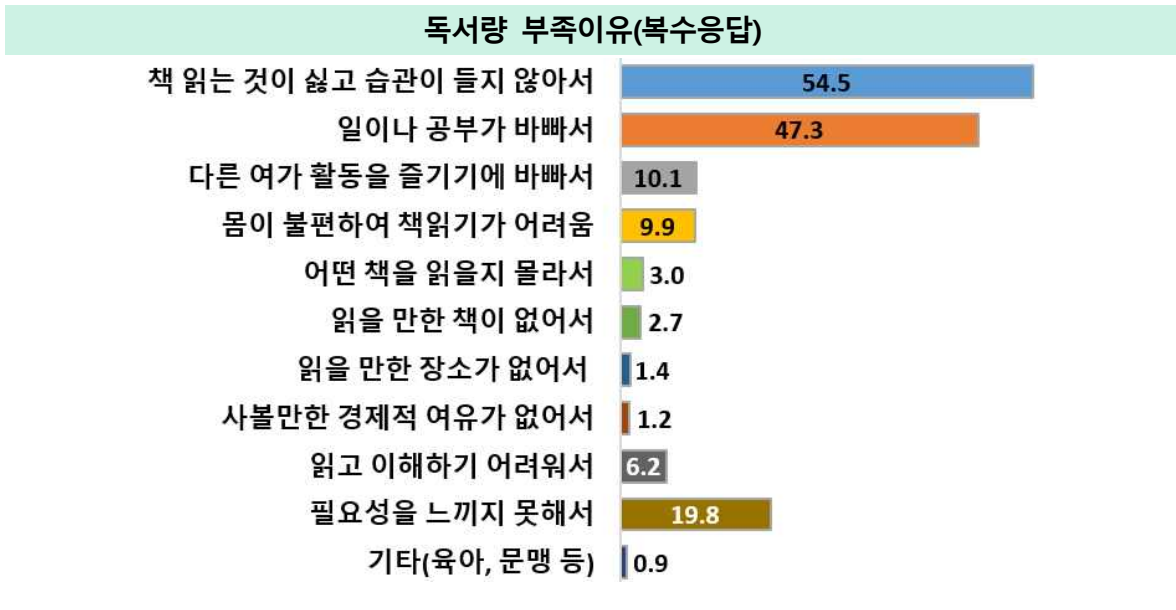
자료: 2021년 신안군 사회조사

3-13 독서량 부족이유(복수응답)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54.5%

- 자신의 독서량에 대하여 「부족하다(부족한편이다+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자 대상으로 독서량이 부족한 이유는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54.5%) 응답이 가장 많고, 「일이나 공부가 바빠서」(47.3%),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9.8%)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응답이 가장 많음.
- 연령별로 15~29세, 50대, 70세 이상은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응답이 가장 많고, 30대, 40대, 60대는 「일이나 공부가 바빠서」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표 3-13] 독서량 부족이유(복수응답) (단위: %)

구분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일이나 공부가 바빠서	다른 여가 활동을 즐기기 바빠서	몸이 불편하여 책읽기가 어려움	어떤 책을 읽을지 몰라서	읽을 만한 책이 없어서	읽을 만한 장소가 없어서	사볼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읽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기타(육아, 문맹 등)
2017년	51.1	49.0	12.9	12.2	4.0	1.9	1.7	2.9	2.2	15.4	1.0
2019년	57.9	47.9	14.9	10.5	4.1	2.0	1.1	2.9	4.6	21.7	0.9
2021년	54.5	47.3	10.1	9.9	3.0	2.7	1.4	1.2	6.2	19.8	0.9
< 지역별 >											
중부권	49.8	40.7	7.6	12.3	2.8	3.3	2.8	1.9	5.1	20.2	0.0
북부권	62.1	48.9	5.6	6.7	4.1	2.7	0.0	1.2	10.6	24.6	0.9
서남부권	54.0	53.2	16.0	9.7	2.3	2.0	0.8	0.3	4.0	15.9	1.9
< 성별 >											
남자	53.7	51.5	13.0	8.0	2.9	3.1	1.9	0.9	3.5	20.9	0.5
여자	55.3	43.2	7.2	11.8	3.0	2.2	0.8	1.4	8.8	18.8	1.4

자료: 2021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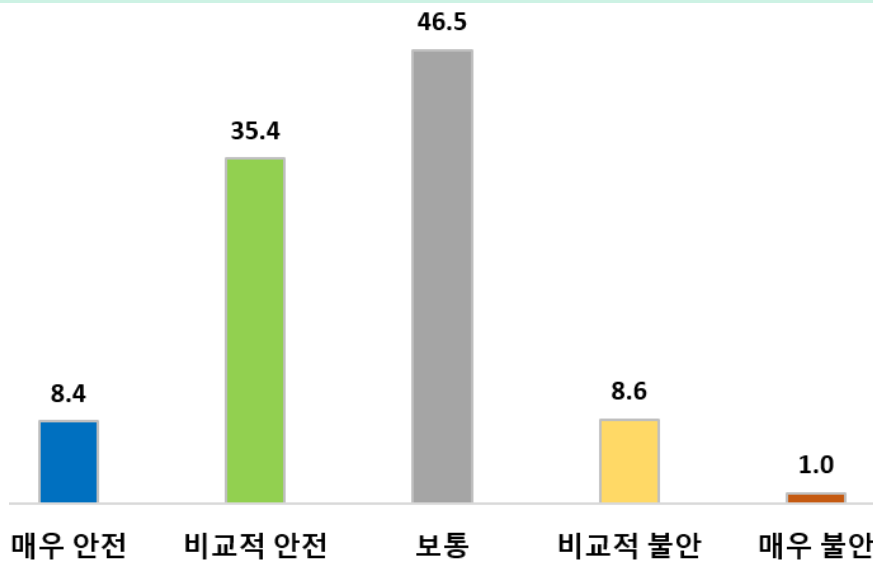
3-14 야간활동 안전성

야간활동 및 보행 안전성 「보통」 46.5%

• 야간 활동 및 보행 안전성에 대해 「보통이다」 응답이 46.5%로 가장 많고, 「안전하다」 43.9%, 「불안하다」 9.6%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보통이다」 응답이 가장 많고, 「안전하다」 응답은 북부권(46.1%), 서남부권(44.7%), 중부권(41.6%) 순으로 나타남.
- 남자는 「안전하다」(48.6%) 응답이 가장 많고, 여자는 「보통이다」(50.4%) 응답이 가장 많음.
- 연령별로 70세 이상은 「안전하다」 응답이 가장 많고, 나머지 다른 연령대는 「보통이다」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불안하다」 응답은 30대(21.4%)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야간활동 안전성



[표 3-14] 야간활동 안전성

(단위: %)

구 분	계	안전하다			보통	불안하다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	매우 불안				
2017년	100.0	35.8	6.3	29.5	48.9	15.3	12.8	2.5
2019년	100.0	44.7	7.3	37.4	42.1	13.1	11.4	1.8
2021년	100.0	43.9	8.4	35.4	46.5	9.6	8.6	1.0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41.6	9.6	32.0	44.6	13.8	12.3	1.5
북 부 권	100.0	46.1	13.7	32.4	48.3	5.6	3.9	1.7
서 남 부 권	100.0	44.7	3.9	40.8	47.3	8.0	7.9	0.1
< 성 별 >								
남 자	100.0	48.6	9.3	39.3	43.2	8.2	7.1	1.1
여 자	100.0	38.4	7.5	30.9	50.4	11.2	10.3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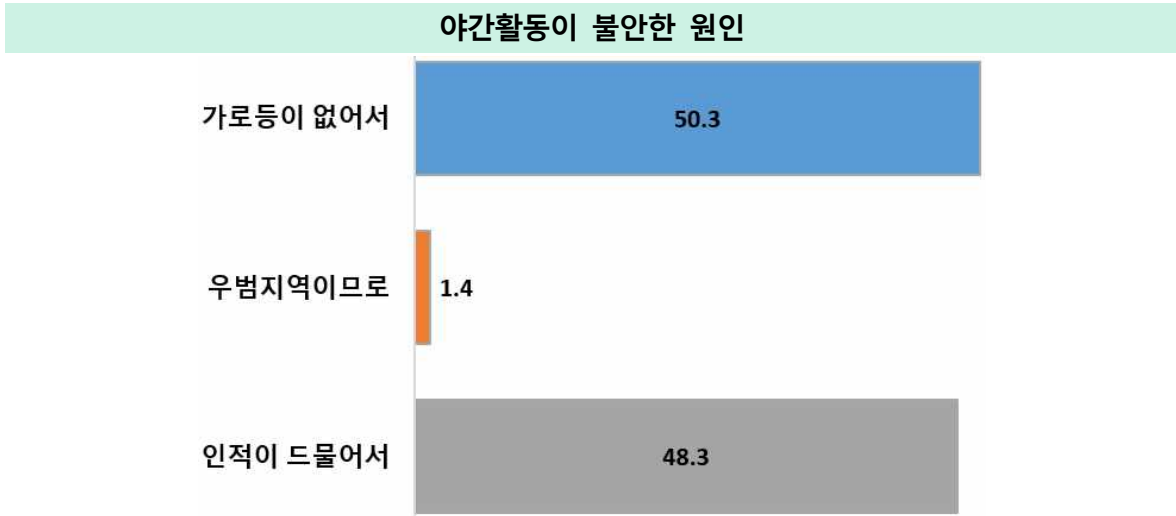
자료: 2021년 신안군 사회조사

3-15 야간활동이 불안한 원인

「가로등이 없어서」 50.3%

• 야간 활동 및 보행이 「불안하다(비교적 불안하다+매우 불안하다)」고 응답자를 대상으로 불안한 원인은 「가로등이 없어서」(50.3%) 응답이 가장 많고, 「인적이 드물어서」(48.3%)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중부권(50.7%), 북부권(81.8%)은 「가로등이 없어서」 응답이 가장 많고, 서남부권은 「인적이 드물어서」(62.4%)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남자는 「인적이 드물어서」(51.0%) 응답이 가장 많고, 여자는 「가로등이 없어서」(52.8%)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30대, 40대는 「가로등이 없어서」 응답이 가장 많고, 15~29세, 50대, 60대, 70세 이상은 「인적이 드물어서」 응답이 가장 많음.



[표 3-15] 야간활동이 불안한 원인

(단위: %)

구 분	계	가로등이 없어서	우범지역이므로	인적이 드물어서	기타(유흥업소, 외국인 등)
2017년	100.0	35.0	11.3	49.6	4.0
2019년	100.0	36.8	11.8	49.5	1.8
2021년	100.0	50.3	1.4	48.3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50.7	1.4	47.9	
북 부 권	100.0	81.8	0.0	18.2	
서 남 부 권	100.0	35.6	2.0	62.4	
< 성 별 >					
남 자	100.0	47.4	1.6	51.0	
여 자	100.0	52.8	1.2	46.1	

자료: 2021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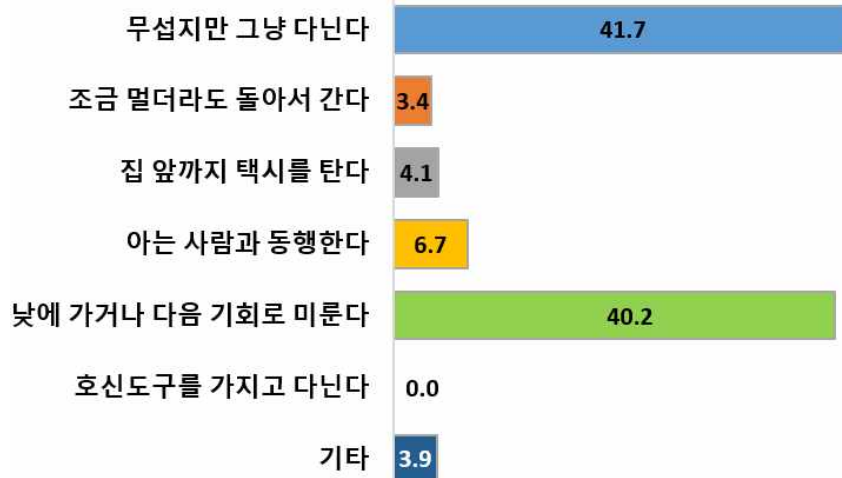
3-16 야간활동이 불안할 때 대처방법(행동)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 41.7%

• 야간 활동이 불안할 때 대처방법(행동)으로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41.7%) 응답이 가장 많고, 「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 40.2%, 「아는 사람과 동행한다」 6.7%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중부권(47.5%)과 북부권(50.1%)은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 응답이 가장 많고, 서남부권은 「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59.6%)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남자는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42.3%) 응답이 많고, 여자는 「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49.6%)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30대, 40대, 50대는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 응답이 가장 많고, 15~29세, 60대, 70세 이상은 「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야간활동이 불안할 때 대처방법(행동)



[표 3-16] 야간활동이 불안할 때 대처방법(행동)

(단위: %)

구 분	계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	조금 멀더라도 돌아서 간다	집 앞까지 택시를 탄다	아는 사람과 동행한다	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	호신도구를 가지고 다닌다	기타
2017년	100.0	41.4	9.4	14.2	9.5	25.0	0.2	0.2
2019년	100.0	49.9	8.2	10.4	7.5	21.6	1.8	0.6
2021년	100.0	41.7	3.4	4.1	6.7	40.2	0.0	3.9
< 지역 별 >								
중부권	100.0	47.5	4.1	6.2	8.0	34.3	0.0	0.0
북부권	100.0	50.1	0.0	5.1	7.3	19.3	0.0	18.1
서남부권	100.0	28.2	3.8	0.0	4.2	59.6	0.0	4.2
< 성 별 >								
남자	100.0	42.3	6.1	7.9	9.4	29.0	0.0	5.3
여자	100.0	41.2	1.2	0.9	4.4	49.6	0.0	2.8

자료: 2021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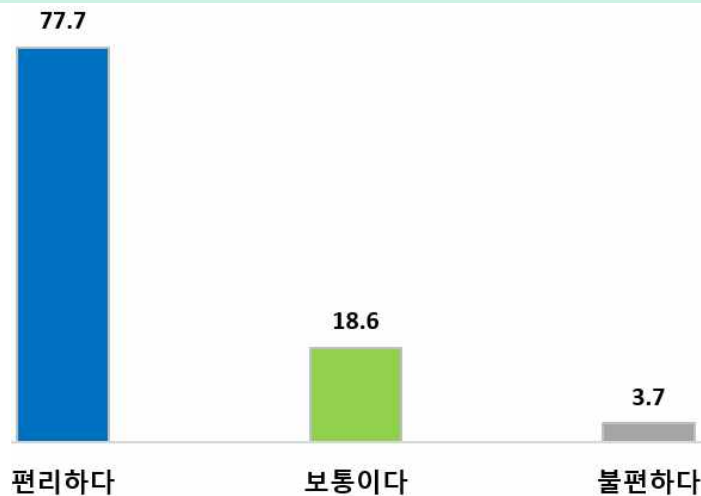
3-17 도로명 주소 활용여부 및 활용만족도 여부

활용 74.7%, 편리하다 77.7%

• 일상생활에서 도로명 주소를 74.7% 「활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활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에서 77.7% 「편리하다」고 응답함.

- 2019년 대비 「활용」여부는 78.7%에서 74.7%로 감소하였으며, 「편리하다」 응답은 61.8%에서 77.7%로 증가함.
- 지역별로 「활용한다」는 응답은 중부권(81.6%), 북부권(73.7%), 서남부권(68.4%) 순이며, 「편리하다」는 응답은 중부권(80.4%), 북부권(76.6%), 서남부권(75.3%) 순으로 분석됨.
- 남자는 84.1%, 여자는 63.9%가 「활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자(73.2%)보다 남자(80.7%)가 「편리하다」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연령은 40대(97.5%)이며, 「편리하다」응답은 15~29세(92.4%)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도로명 주소 활용여부 및 활용만족도 여부



[표 3-17] 도로명 주소 활용여부 및 활용만족도 여부

(단위: %)

구 분	계	활용한다	활용 만족도			활용하지 않는다	
			소계	편리하다	불편하다		보통이다
2019년	100.0	78.7	100.0	61.8	5.8	32.4	21.3
2021년	100.0	74.7	100.0	77.7	3.7	18.6	25.3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81.6	100.0	80.4	5.7	13.9	18.4
북 부 권	100.0	73.7	100.0	76.6	3.7	19.6	26.3
서 남 부 권	100.0	68.4	100.0	75.3	1.3	23.5	31.6
< 성 별 >							
남 자	100.0	84.1	100.0	80.7	3.9	15.4	15.9
여 자	100.0	63.9	100.0	73.2	3.4	23.4	36.1

자료: 2021년 신안군 사회조사

3-18 도로명 주소 활용이 편리한 분야(복수응답)

「길 찾기」, 「배송 관련」 분야에 주로 활용함

- 도로명 주소를 활용하면서 편리하다고 느끼는 응답자 중에서 주로 활용하는 분야는 「배송관련(우편물, 택배, 음식배달, 홈쇼핑 등)」이 76.3%로 가장 많고, 「길 찾기(내비게이션 등)」 61.6%, 「인터넷 주소 찾기(주소검색 등)」 21.4%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모든 분류에서 「길 찾기」와 「배송 관련」 응답에 집중되어 있음.
-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배송 관련」 응답이 가장 많고, 남자(71.4%)와 여자(84.0%) 모두 「배송 관련」 응답이 많음.
- 연령별로 30대와 40대는 「길 찾기」 응답이 가장 많고, 나머지 다른 연령대는 「배송 관련」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도로명 주소 활용이 편리한 분야(복수응답)



[표 3-18] 도로명 주소 활용이 편리한 분야(복수응답)

(단위: %)

구분	길찾기(인터넷지도, 내비게이션 등)	배송 관련(우편물, 택배, 음식배달 등)	인터넷 주소 찾기(주소검색 등)	회원 가입(온라인, 오프라인 등)	주소정보(기본도 등) 다운로드	기타
2019년	64.6	68.1	31.0	16.1	3.5	
2021년	61.6	76.3	21.4	11.3	2.8	
< 지역별 >						
중부권	62.2	82.6	15.8	8.6	4.0	
북부권	60.6	82.5	23.7	5.5	1.0	
서남부권	60.7	66.3	25.8	17.8	2.7	
< 성별 >						
남자	67.3	71.4	22.1	10.2	2.4	
여자	51.9	84.0	20.2	13.7	3.6	

자료: 2021년 신안군 사회조사

3-19 도로명 주소 활용이 불편한 분야(복수응답)

활용이 불편한 이유 「옛 주소에 익숙」

- 도로명 주소를 활용하면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응답자 중에서 불편한 이유는 「옛 주소에 익숙(지번, 행정구역 명칭 등)」이 89.3%로 가장 많고, 「도로명주소 체계 어려움」 17.7%, 「도로명주소 홍보 부족」 15.9%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옛 주소에 익숙」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중부권(91.8%), 북부권(90.1%), 서남부권(74.4%) 순으로 조사됨.
- 남자(92.1%)와 여자(84.6%) 모두 「옛 주소에 익숙」하다는 응답이 많음.

도로명 주소 활용이 불편한 분야(복수응답)



[표 3-19] 도로명 주소 활용이 불편한 분야(복수응답) (단위: %)

구 분	옛 주소에 익숙(지번, 행정구역 등)	도로명주소 홍보 부족	도로명주소 체계 어려움	도로명이 길고 기억하기 곤란	안내시설물 부족(건물번호판, 도로명판 등)	기타
2019년	80.2	9.9	30.3	19.7	21.3	0.8
2021년	89.3	15.9	17.7	12.5	13.2	
< 지역 별 >						
중 부 권	91.8	4.1	25.2	3.5	12.8	
북 부 권	90.1	35.8	6.6	35.8	12.8	
서 남 부 권	74.4	38.5	0.0	12.8	16.2	
< 성 별 >						
남 자	92.1	13.8	22.7	9.7	7.3	
여 자	84.6	19.5	9.1	17.3	23.6	

자료: 2021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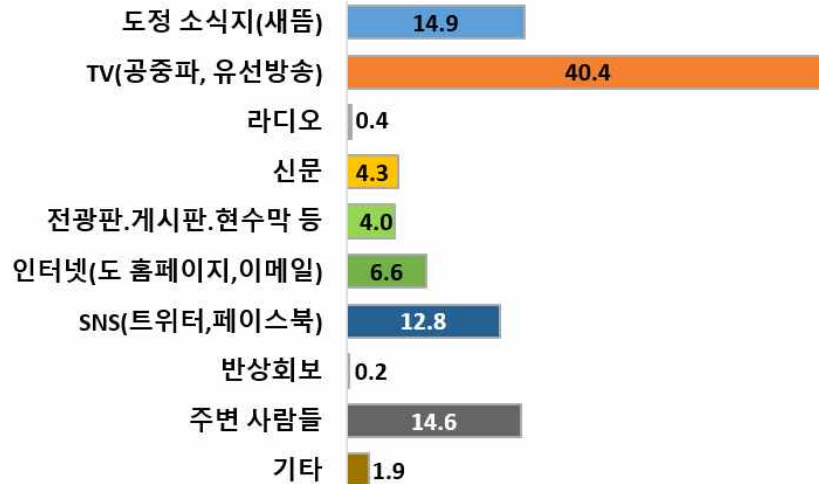
3-20 행정정보 획득 매체-(1)전라남도 도정

「TV」를 통하여 획득 40.4%

• 전라남도 도정정보를 얻는 수단으로 「TV(공중파, 유선방송)」응답이 40.4%로 가장 많고, 「도정 소식지(새뜸)」 14.9%, 「주변 사람들」 14.6% 순으로 나타남.

- 「TV」를 통하여 습득한다는 응답은 2017년(47.8%), 2019년(41.2%) 대비 감소함.
-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TV」 응답이 가장 많고 남자(37.1%)와 여자(44.2%) 모두 「TV」를 통하여 획득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 연령별로 15~29세와 30대는 「SNS」 응답이 가장 많고,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은 「TV」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이 높을수록 「TV」 응답은 증가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SNS」응답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행정정보 획득 매체-(1)전라남도 도정



[표 3-20] 행정정보 획득 매체-(1)전라남도 도정

(단위: %)

구 분	계	도정 소식지(새뜸)	TV(공중파, 유선방송)	라디오	신문	전광판.게시판.현수막 등	인터넷(도 홈페이지,이메일)	SNS(트위터,페이스북)	반상회보	주변 사람들	기타
2017년	100.0	6.5	47.8	4.4	1.9	5.3	15.8	7.9	0.2	10.0	0.3
2019년	100.0	9.5	41.2	2.2	1.7	6.8	11.5	15.9	0.4	10.5	0.2
2021년	100.0	14.9	40.4	0.4	4.3	4.0	6.6	12.8	0.2	14.6	1.9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11.9	47.8	0.2	5.7	0.8	6.9	13.6	0.5	12.0	0.6
북 부 권	100.0	10.1	43.3	1.2	6.6	1.0	3.9	12.8	0.0	21.3	0.0
서 남 부 권	100.0	20.8	31.2	0.0	1.4	9.3	8.2	12.0	0.0	12.8	4.3
< 성 별 >											
남 자	100.0	19.2	37.1	0.6	6.0	3.7	8.7	13.1	0.1	9.5	2.1
여 자	100.0	9.8	44.2	0.1	2.2	4.5	4.3	12.5	0.3	20.5	1.6

자료: 2021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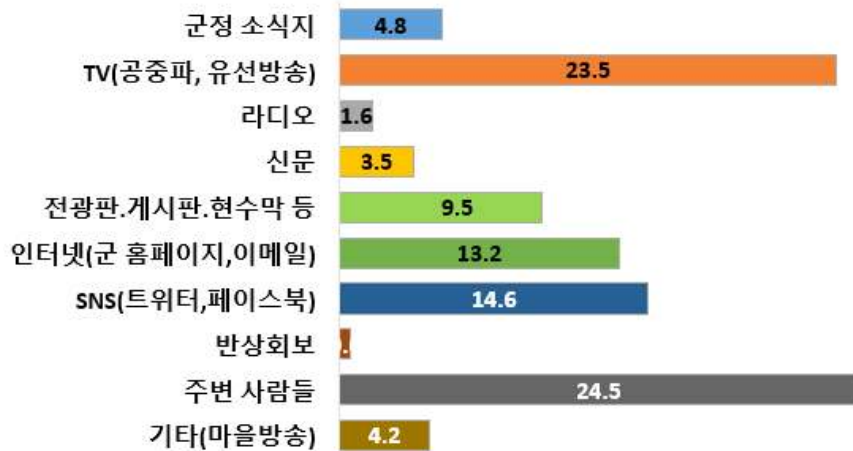
3-21 행정정보 획득 매체-(2)신안군정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획득

- 신안군정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 「주변 사람들」 응답이 24.5%로 가장 많고, 「TV(공중파, 유선방송)」 23.5%, 「SNS(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14.6%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중부권은 「TV」(32.2%)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32.7%), 서남부권(21.2%)은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획득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 남자는 「TV」(21.1%) 응답이 가장 많고, 여자는 「주변 사람들」(34.3%) 응답이 가장 많음.
- 연령별로 15~29세와 30대는 「SNS」 응답이 가장 많고, 40대는 「인터넷」, 50대는 「TV」, 60대, 70세 이상은 「주변 사람들」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행정정보 획득 매체-(2)신안군정



[표 3-21] 행정정보 획득 매체-(2)신안군정

(단위: %)

구분	계	군정 소식지	TV(공중파, 유선방송)	라디오	신문	전광판, 게시판, 현수막 등	인터넷(군 홈페이지, 이메일)	SNS(트위터, 페이스북)	반사회보	주변 사람들	기타(마을방송)
2017년	100.0	2.4	49.7	1.3	3.3	3.7	22.9	6.9	0.5	9.1	0.3
2019년	100.0	3.2	38.3	1.6	2.8	6.9	19.1	13.9	1.4	12.5	0.2
2021년	100.0	4.8	23.5	1.6	3.5	9.5	13.2	14.6	0.6	24.5	4.2
< 지역별 >											
중부권	100.0	3.7	32.2	0.2	3.0	0.8	14.8	15.7	1.3	22.5	6.0
북부권	100.0	0.9	20.2	1.2	6.5	13.4	7.8	15.9	0.3	32.7	1.1
서남부권	100.0	8.5	16.8	3.3	2.1	15.8	15.1	12.6	0.0	21.2	4.6
< 성별 >											
남자	100.0	7.1	21.1	0.9	5.4	10.9	16.9	17.1	0.7	16.0	4.0
여자	100.0	2.2	26.2	2.4	1.4	8.0	8.9	11.7	0.4	34.3	4.6

자료: 2021년 신안군 사회조사